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오심)에 관한 순복음

위르겐 몰트만

필자는 한세대학교 영산신학연구소로부터 조용기 원로목사님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논문을 기고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청탁을 큰 기쁨으로 수락했던 이유는, 필자 자신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때는 1970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던 개혁교회 세계연맹(WARC) 본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회의를 계기로 한신대 교수였던 박봉량 박사는 필자를 한국으로 초청했고, 그의 제자였던 김균진 교수를 필자가 가르치고 있는 튀빙엔 대학교로 유학을 보냈다. 이 만남을 통해 필자는 한국교회와 한민족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친밀한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¹⁾

필자의 박사후보생으로 수학했던 박종화 목사는 처음으로 필자에게 그의 스승이었던 한신대 안병무 교수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이를 통해 필자는 고 안병무의 민중신학을 접하게 되었다. 당시 필자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성서적인 학문적 이유들 때문에 민중신학에 큰 관심을 가졌다. 안 교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마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와 유대 백성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에서 다뤘던 복음서의 백성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라오스’(laos)나 이방 민족들을 뜻하는 ‘에스네’(ethne)가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며, 그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 목자를 잃은 자를 뜻하는 단어인 ‘오클로스’(ochlos)를 의미한다. 그들은 예수의 첫사랑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백성이다. 예수는 그들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셨고, 그들 또한 예수의 고난을 함께 짊어졌다. “마가는 자신의 시대에 민중의 고난을 예수의 수난사를 근거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역으로 예수의 고난은 민중의 숙명 속에서 마가 시대에 현실화되었다.”²⁾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희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한” 가운데 현존한다. 그분은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과 분노를 친히 경험하셨다.

이 같은 신학적 관점들은 1972년에 출간된 필자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책에서 표명한 십자가 신학과 가깝다. 이러한 이유로 안 교수의 한국신학연구소는 이 책

이 논문의 번역자는 이정환 박사이다. 이정환 박사는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위르겐 몰트만 교수의 수제자인 미하엘 벨커 교수의 지도 아래 “칼 바르트와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 윤리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세대학교 강사로 있으면서 2017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북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후 연수과정’으로 ‘피히테의 후기 종교철학’을 연구하고 있다.

1) J. Moltmann, "40 Jahre Korea. Wie ich es erlebte," *Sozialethik bei D. Bonhoeffer*, hg. von Yu, Suk Sung, STUP 2016, 463-79.

2) J. Moltmann (Hg), *Minjung. Theologie des Volkes Gottes in Südkorea*, Neukirchen 1984, 167.

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었다. 1984년 필자는 박종화 목사와 함께 『한국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학. 민중』이라는 책을 독일에서 펴냈다. 당시 안병무 교수는 이미 옥중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필자는 1980년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출간했고, 1985년에는 『생태학적 창조론』을 출판했지만 이 책에선 더 이상 안병무의 신학을 따르지 않았다. 필자는 한국의 민중신학, 안병무 교수와 신학적으로 매우 가깝게 교류했었지만, 필자의 신학은 그의 민중신학과 거리를 두었다.

1995년 필자는 오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이 한국 방문에서 박종화 목사는 필자에게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래서 필자는 조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 아침 7시에 우리는 여의도 63빌딩에서 조찬을 함께했다. 그 식사에서 조 목사는 필자에게 자신의 신앙 간증과 목회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위중한 질병을 앓게 되었을 때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시작하여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했으며 80만 성도를 가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필자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조 목사에게 필자 자신의 신앙체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했다. 즉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수용소에 갇혔던 본인의 인생사에 대해서, 가시철조망 뒤에 있던 하나님의 저버리심에 관해서, 그리고 시련당하셨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쟁 포로로 시련 가운데 있던 필자를 찾으셨는지를, 더 나아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필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 소망으로 채워주셨는지를 조 목사에게 이야기했다. 더불어 필자가 어떻게 수학 대신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필자의 신학의 처녀작인 1964년 『희망의 신학』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 개인적인 인생사와 신앙 간증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필자는 당시에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조 목사는 필자의 손을 잡고서 한국어로 기도해 주셨고, 적어도 3주 이상 필자에게 천식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서 필자는 “잃어버린 자를 위한 구원-병든 자를 위한 치유-가난한 자를 위한 부유함”³⁾에 관한 그의 삼중축복이 대단히 설득력 있는 방향 설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조 목사는 현대의 “번영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셨고, 성령의 오순절 은사들을 전했다. 그렇다면 안병무 교수가 제시했던 마가복음서의 오클로스, 즉 “잃어버린 자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은 잃어버린 “백성”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2000년 5월에 필자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필자를 국제신학심포지엄에 초청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에게 조용기 목사의 모든 영문판 책들을 보내주었다. 필자는 그가 십자가 신학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개인 영혼에 실제적으로 연관된 오순절신학을 주창했지만, 그럼에도 그보다 더 힘찬 부활 신학이 없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필자는 한편으로 그의 부활의 빛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부활의

3)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삼중축복과 함께 네 번째로 물질적 축복을 추가해서 확대했다. 이는 아시아의 대도시에 살고 있는 “외로운 군중을 위한 공동체”와 중국에서 농촌을 떠나 대도시에서 일하는 백만 명의 하급 노동자(농민공)들을 위한 복음이 될 수 있다.

영으로부터 나온 능력들 사이의 관계를 함께 결부시켰다.⁴⁾ 이를 통해 개인적인 영적 은사에만 국한시킨 신학적 한계들을 제고했다. 부활의 영은 그분의 빛을 통해 우리를 엄습하며, 그분의 역동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불사르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 영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곧 모든 살아 있는 것 위에 부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은 “땅의 용모를 새롭게 하신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고대하고 체험해야 한다. 그와 함께 우리는 인간의 생태계적 관계 그물망 속에서 땅과 물, 공기와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물들에게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영을 고대하고 체험해야 한다. 조찬 식사 시간에 가졌던 조용기 목사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이러한 비판적 관점들에 대한 이해를 함께 공감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그의 교회는 “순복음(충만한 복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복음의 풍요로움과 생명의 풍요로움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교회이다.

2004년 오순절에 다시 한 번 필자는 국제신학심포지엄의 강연자로 초대를 받았다. 이번에는 필자의 “희망의 신학”과 희망의 선교에 관한 주제였다. 필자는 여기서 고대의 세계시대론과 근대의 세대주의와 논쟁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역동적인 종말론을 다뤘다.

I. 세계시대론(Die Weltzeitalterslehre)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하나의 계시이다. 만일 6일의 창조 사역을 세계사로 바꿔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교의 탈무드로부터 기독교 종말론에 커다란 의미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얻을 수 있다.

“엘리아 학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가르쳤다:
6,000년 동안에 세계가 만들어 졌고 그 가운데,
2,000년은 카오스(혼란), 2,000년은 토라,
2,000년은 메시아 시대,
그럼에도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로 인해,
이러한 연수들의 많은 해가 이미 지나가 버렸다.”⁵⁾

따라서 이 세계의 종말은 올 것이다. 그렇게 세계는 항상 늙어 갈 것이며, 그의 끝은 연수가 다한 생명의 죽음과 같이 예측이 가능하다. 세계의 종말은 여기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대심판을 말한다.

4) J. Moltmann, "Come, Creator Spirit, and Renew Life. A theological Meditation on the "Life-Giving Spirit," *Louvain Studies* 22 (1987): 2-14. J. Moltmann, "Der Segen der Hoffnung," *Die Theologie der Hoffnung und das volle Evangelium des Lebens*, Seoul, 2004.
5) W. Goetz, *Translatio Imperii.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Geschichtsdenkens und der politischen Theorien im Mittelalter und in der frühen Neuzeit*, Tübingen 1958, 261.

하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사도적인 부활론이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세계의 새 창조가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난 분” (골 1:18)이다. 또한 그분은 생명의 “근원(Anführer)”이 되신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믿음은 하나님의 현재적 은혜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적 약속에 힘입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만든다(벧전 1:3). 하나님의 새 세계에 대한 미래는 이미 시작했다. 이 미래는 먼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시작했으며, 다음으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부활의 영의 부으심이고, 그다음에는 “그 분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가운데, 마지막으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에 있다(고전 15:20-24). 부활의 영이 가진 생명의 능력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린 불”일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계의 능력들”(히 6:5)이다.⁶⁾

조용기 목사는 2005년 새해 설교에서 고무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 설교 말씀은 그의 교회 신문을 통해 발간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오직 협소하게 인간의 영혼 구원 안에서만 해석했었다는 점을 공감했고, “사회 구원의 해와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구원의 해”를 선포했다. “저는 사회적 악들을 경시했습니다. 자연의 재앙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해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자연보호와 사회복지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하나님의 구원은 또한 자연을 포함합니다.” 그의 교회 신문은 필자에게 이 설교에 관한 신학적 논평을 요청했고, 필자는 놀랍고 기쁜 마음으로 기고의 글을 썼다. 필자가 그의 교회 후임자인 이영훈 목사와 담소를 나눴을 때, 그는 필자에게 다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럼에도 순복음교회 사람입니다.”

2009년, 조용기 목사는 필자를 서울의 롯데 호텔로 부르셔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저는 파킨스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위르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이후부터 필자는 한국을 방문 할 때마다 조 목사를 찾아뵙게 되었다. 그리고 필자는 그 때마다 그와 신학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으며 보통은 박종화 목사가 그 만남을 주선했다. 필자는 한편으로 조 목사가 자신의 병을 감내하면서도 방문자를 친절하게 환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진심어린 인내심에 놀라 기도했다. 필자가 신학 동료이자 친구인 한스 쿡에게 밝혔듯이, 파킨스병은 신체에만 해당하지 뇌와는 상관이 없다. 반면에 필자의 아내에게서 알 수 있듯이, 알츠하이머병은 뇌를 공격하지만 신체를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작년 2017년 6월에 필자는 서울을 방문했다. 필자의 책들이 한국어로 전집이 출판되어 기념하는 행사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열일곱 권의 책들이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간된 것이다. 이 출판 기념행사에 참석한 조용기 목사는 한 시간 넘게 의자에 앉아 계셨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셨지만 한마디의 언사도 없으셨다. 그럼에도 필자는 그의 기념회 참석에 대단한 존경심을 가졌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조용기 목사의 설교와 그의 놀라운 영적 영향력은 필자가 이전부터 큰 존경심을 갖

6) J. Moltmann, *Das Kommen Gottes. Christliche Eschatologie*, München 1995.

고 있었던 바트 볼(Bad Boll)에서 사역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Christoph Blumhardt)의 설교와 영향력을 상기시킨다.⁷⁾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는 그의 아버지가 독일 남부 뷔르템베르크에서 일으켰던 신앙각성운동으로부터 출발했다. 이 신앙운동은 몸과 영혼이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한 부인에 대한 치유 기적을 계기로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운동을 가리켜 “예수가 승리하셨다는 것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의 승리가 참된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노래했다. 목회상담 사역을 위해 크리스토프의 아버지는 바트 볼의 온천장을 매입했고, 이후에 바트 볼은 “하나님 나라 소망의 불가마”로 불려졌다. 절망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깊은 뿌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트 볼에서 희망을 치유 받았던 것이다. 곧 “예수는 가난, 죄악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저항이다.” 우리는 바트 볼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씀보다 더 나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예수는 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그들은 매일의 일상을 살았다.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의 희망 신학은 칼 바르트와 에드워드 투르나이젠의 변증법적 신학과 스위스에서 일어난 레온하르트 라가츠(Leonhardt Ragaz)의 종교적 사회운동, 그리고 디트리히 본회퍼의 차안적인 영성, 마지막은 아니지만 필자의 “희망의 신학”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북미에선 그의 설교집이 현재 번역되었으며, 한국에선 장신대 김명용 교수의 “온 신학”이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의 생명 신학에 기초했다.

II.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약 6:8)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단어는 과연 성서적인 것일까?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그리스도의 “다시 돌아오심(return)”에 대한 기대는 교회 안에서 유용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만일 이러한 단어들(두 번째 오심, 다시 돌아옴)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단어들이 함의하고 있는 다음의 사실(Tatbestand)을 가정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이곳에 있었습니다—그리스도는 지금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그리스도는 그러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문을 닫아야만 한다. 또한 교회 문 앞에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걸어 놓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소유자는 현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만간 다시 올 것입니다.’

이 현수막을 보는 이들과다 곧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목도하게 된다.

아마도 우리가 “재림(Wiederkunft)”이라는 단어를 연상한다면, 그리스도의 파루시 안에 관해서 신약성서가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 예수여 어서

7) J. Moltmann, "Christoph Blumhardt—ein Theologe der Hoffnung," *Hoffen und Denken*, Neukirchen, 2016, 195-210.

오시옵소서”(약 5:8; 살전 3:13; 벧후 3:4 등등). 파루시아 단어의 독일어 번역은 원래 의미하고 있는 헬라어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Zukunft)를 강조한다.⁸⁾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가 뜻하는 의미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분의 미래적 현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헬라어 파루시아의 영어 번역인 “the coming of the Lord”(주님의 오심)는 동일한 이유로 독일어 번역과 같다. “다시(Wieder, 再)”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미래”가 올바른 헬라어 성서 번역이다. “재림”이라는 단어가 다시 돌아오심을 연상시킨다면, “미래”는 어떤 새로움을 상기시킨다. 미래는 그래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며, 또 그렇기에 아직 한 번도 거기에 있지 않음을 예고한다. “재림”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찍이 거기에 있었다는 세계와 그와 같은 시간의 경과를 전제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미래는 죄와 죽음 그리고 마귀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며 이 소멸하는 시간의 종말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미래는 니케아 공의회 신앙 고백이 말한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하나님의 미래적 세계의 생명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마 24:3)라고 묻는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의 시간”가운데서 오신다는 것을 말한 다거나 혹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시간” 속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더욱이 그분의 오심을 덧없는 세상 시간의 달력에서 한 날짜로 정할 수 없다. 그분은 갑자기 오신다. 사도 바울은 “순식간에 홀연히”(고전 15:51)라고 말씀한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면, 이 세계의 시간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즉 소멸되는 무상으로부터 소멸되지 못하는 것으로 변환 될, 우주의 대전환이 시작한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하며 마태복음 25장 1-13절에서 언급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매 순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원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천상의 어느 한 곳에 평온하게 앉아 있으면서 특정한 시간을 기다리다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시해야만 하고 모든 날을 기다려야 하는 그 무엇입니다.”⁹⁾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언급 속에 담겨 있는 한 가지 요소만큼

8) 역자주: 몰트만은 이미 1989년 자신의 기독교론 저서인 *Der Weg Jesu Christi*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부터 ‘재림’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종말론에서 부적절한 성서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는 파루시아의 번역으로 “미래”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은 단순히 공허하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다시 올 것이라는 재림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미래는 철저히 새로움을 지향하며 현존하는 질서와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과정에 대한 종말을 가져온다고 몰트만은 설명한다. 독일어 단어 Zukunft는 일반적으로 시간적 의미에서 “미래”를 뜻할 뿐만 아니라 “~으로 오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라틴어의 미래를 뜻하는 두 단어 *Adventus*와 *Futur*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설명된다. 즉 *Adventus*는 “앞으로 오고 있는 도래, 혹은 강림”으로 이해되며 *futur*는 “발생하는 것, 되어 진 것의 미래”로 파악된다. J. Moltmann, *Der Weg Jesu Christi. Christologie in messianischen Dimensionen*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9), 140f. 더 나아가 1995년에 출간된 몰트만의 종말론 책인 *Das Kommen Gottes* 『오시는 하나님』에서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시간대의 부재”를 의미하고 “무시간적인 초월적 미래”를 강조하기 때문에 모순적이라고 그는 비판한다. 이에 대해서는 J. Moltmann, *Das Kommen Gottes. Christliche Eschatologi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Haus, 1995), 42-44를 참조.

9) Ibid., 200.

은 올바르다고 인정해야 하며 그 의미를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즉 예수의 “재인식 (Wiedererkennen)”을 말한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는 이른 아침 해 뜰 녘에 나타나실 때, 그분은 예수와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그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 제자들과 여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못 자국과, 그분의 음성 그리고 빵을 떼시는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그렇게 “재인식”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분을 회상하고 현재적으로 체험하면서 “재인식”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중적 오심을 통해 평가될 수 있다. 즉 그분은 “육체로” 오셨으며, 또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 중간 시기는? 그분은 이 땅에서 멀리 떨어진 천상에 계시는 분일까? 이러한 질문은 초기 교회에서 가르친 그리스도의 삼중적 오심에 관한 교리를 축약한 것이다.

III. 그리스도의 삼중적 오심에 관한 교리(Die Lerhe vom dreifachen Kommen Christi)

-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 그분은 영으로 오십니다.
-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 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현존을 다음과 같이 참작할 수 있다. 즉 믿음으로부터 현재적으로 임하시며 교회 안에서 오늘 실존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화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즉 모든 신약성서에서는 왜 그리스도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에 대한 기대는 불확실해졌다. 이 기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만큼 더 실망스러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며, 다른 세계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고 말았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미래를 향한 이 희망은 묵시적 시간에 대한 사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개념 안에 기초한다.

요한은 그의 공동체와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 이 평화의 안부인사는 그분이 그곳에 계시며, 그곳에 계셨고, 그곳에 계실 것에 관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와 같은 의미였다면, 그분의 현존을 통한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영원이라는 문장은 다른 말로 바꿔 써야한다. 그러나 요한은 시간의 과정이라는 단어를 철회하고 대신 하나님의 오심을 통한 이루어짐(Werden)이라는 말로 대체했다. 그는 그곳에 계실 분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시는 분을 말했다. 이 오시는 하나님은 옛것에 마주서 있는 새로움이며 신적인 절대적 영원에 관한 일반

적인 철학적 사유와 대립하고 있다.¹⁰⁾ 신약성서가 그리스도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구약성서도 하나님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의 민족들에게, 그의 땅에 오실 것이다. 이는 예언서들의 소식에서, 특히 대예언서 이사야서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백성이 낯선 타향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일어나소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 올리시고 우리에게 오소서”(시 44).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을 때, 그 백성은 하나님을 위한 길을 준비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시 24:9)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분 앞에서” 노래와 춤을 추면서 그분의 미쁘심(Schönheit)을 찬양했다.

육신으로 오셨고, 영으로 오시며, 영광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는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계셨으며, 그곳에 오시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기대는 기독교 신앙에 불필요한 어떤 것이 아니다. 또한 이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파루시아 기대는 성서의 하나님 신앙에 근간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신다. 그리스도의 미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지막 발걸음이다. 하나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포함하는 그의 나라에 오신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고전 15:28). 이것은 결코 미래적인(futurische)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림적인(adventliche) 종말론을 가리킨다.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적 오심의 현재화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1.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다. 기독교적 미래의 희망은 고착된 역사적 회상에 기초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이는 이미 구약성서에서 언급된, 노예생활에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내려오심(Herabkunft Gottes)을 말한다(출 3:7-8).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기포기를 의미한다. 즉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빌 2:7),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자기낮춤(Selbstentäußerung Christi)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바라본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한다. 그분은 우리의 삶과 피로 오셨고,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위해 자신의 신적 생명을 버리셨으며 우리의 땅을 그의 유업으로 만드셨다.

필자는 여기서 신학적으로 주장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앙을 간증하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수용소에 경험한 끔찍한 공포 속에서 필자는 하나님을

10) E. Peterson, *Theologische Traktate*, München 1951, 334.

찾았지만 그분은 전혀 응답하시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는 필자에게 가까이 오셨고, 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처럼 필자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예수가 없었다면 필자는 무신론자가 되었을 것이다. 인간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자연 세계의 관찰을 통해서도 필자가 겪었던 공포의 나날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뜻을 좇아서 필자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가 “아바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 필자가 그리스도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내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꼈으며,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희망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가 경이롭거나 끔찍하게 경험하는 이 세계 안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자기계시이다.

2. 그분은 영으로 오신다. 우리는 예수의 하나님 역사를 회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현존(Gegenwart)을 경험한다(erfahren). 예수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영 안에서 만물을 살리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성만찬 속에서 우리를 위한 그의 헌신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영적 능력을 경험한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고 말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그렇게 더욱 가깝게 현존하신다. 교회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교회에 현존하는 “머리”로서 이해한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공동체로 실존하는 그리스도”라고 명명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공동체를 자신과 동일시한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눅 10:16),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요 20:23). 그리스도는 또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갇혀 있는 자들과 곤궁한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이들은 나의 자매들과 형제들입니다. 즉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면에서 에워싸고 있다. 그분은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가 시간을 재어 보길 원한다면, 이 현존은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이 될 것이다.

3.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믿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사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확장시킨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그분의 오심의 빛 가운데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재촉해야 한다.” 기대한다는 것과 재촉한다는 것은 서로가 모순적인 것일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현실 경험들 속에서 이 단어를 번역한다면, 그렇게 모순적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IV. 나가는 말

기대함(Warten)이란 현실에서 일어난 폭력적 상태들과 불의들에 우리가 순응한다는 말이 아니다. 즉 기대함은 권력과 부, 행복한 이 세상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들에 만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와는 다른 어떤 것,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주님의 영광을 말한다. 그리고 재촉함(Eilen)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서 바라보는 자세를 의미한다. 장차 올 하나님의 세계라는 미래는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속에서, 우리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 가운데 앞당겨 올 수 있다.

기대함과 재촉함은 따라서 저항(Widerstehen)과 앞당김(Vorwegnehmen)을 뜻한다. 이들은 두 가지 종말론적 자세들이다. 그리스도의 미래를 희망하면서 우리는 민족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저항할 수 있다. 이 희망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분의 정의를 선취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을 거룩하게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를 확신한다. “기대함과 재촉함”이라는 단어는 바트 볼에서 기독교적 희망을 설교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목사가 썼던 문구이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그분은 영으로 오십니다—그분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 “영”, 그리고 “영광”이라는 세 단어를 각자의 한계가 고정되어 정해진 영역들로 상상해선 안 된다. 오히려 이들은 생동적으로 서로가 연이어 교차된 단어들이다. 즉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영에 의해서 이미 들어오셨다는 것과, 그리스도는 영으로 영광의 시작을 통해 이미 충만 하신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의 크신 현존이 영 안에서 약속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영 안에 계신 그분의 크신 현존이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의 보편적이고 최종적인 현존이 약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Goez, W. *Translatio Imperii.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Geschichtsdenkens und der politischen Theorien im Mittelalter und in der frühen Neuzeit.* Tübingen, 1958.]
- Moltmann, J. "Come, Creator Spirit, and Renew Life. A Theological Meditation on the 'Life-Giving Spirit'." *Louvain Studies* 22 (1987): 2-14.
- _____. *Das Kommen Gottes. Christliche Eschatologie.* München, 1995.
- _____. "40 Jahre Korea. Wie ich es erlebte." *Sozialethik bei D. Bonhoeffer.* hg. von Yo, Suk Sung. STUP, 2016, 463-79.
- _____. "Christoph Blumhardt—ein Theologe der Hoffnung." *Hoffen und Denken.* Neukirchen, 2016.
- _____. (Hg) *Minjung. Theologie des Volkes Gottes in Südkore.* Neukirchen, 1984.
- Peterson, E. *Theologische Traktate.* München, 1951.